

武者小路實篤의 초기작품과 『新しき村』 연구



趙

晶

錦

二

〇

〇

二

碩士學位論文

武者小路實篤의 초기작품과 「新しき村」 연구

- 「人間愛와 그 실천」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鸞 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趙 晶 錦

2002年 2月

武者小路實篤의 초기작품과 「新しき村」 연구

- 「人間愛와 그 실천」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鸞 姬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10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提出者 趙 晶 錦

趙晶錦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1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武者小路實篤의 초기작품과 「新しき村」 연구
- 「人間愛와 그 실천」을 중심으로 -

趙 晶 錦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鸞 姬

무사노코지사네아쓰는 학습원 출신의 대정기를 품미했던 영향력 있는 작가로서 백화파를 통해 활동했다.

明治시대의 신분, 성별 계급적 차별이 잔존했던 대정기의 보수적 풍토에 새로운 가치관을 고취시켜 당시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사실을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네아쓰의 주된 신념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다. 평범한 개인의 가치가 미처 인정되지 않았던 전근대적 요소가 팽배한 시대에 문학의 힘으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문학은 사실 문학성의 측면에서는 세련됨이 결여되었으며, 문학작품만의 묘미인 기교나 수사를 가미시키지 않아 무미건조한 느낌이 있으나 그 안에 담긴 육성은 시종일관 진리에 대한 성실한 추구이다. 한때 톨스토이에 경도 했던 바 있었던 사네아쓰는 기독교의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지만 인류에 대한 「사랑」의 사상을 깊이 흡수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일생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긍정적 시각으로서 천성적인 밝은 성품을 토대로 창작을 해왔다. 여기에는 톨스토이와 메테를링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본고는 1918년 즉 「新しき村」를 창설할 즈음이 가장 그의 종교적이고 인간애적인 인품이 드러나는 시기로 규정하고 그 시기의 작품인 『友情』, 『幸福者』를 통하여 그의 인간 사랑을 살펴보고 그 실천의場인 「新しき村」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友情』에서 大宮와 野島의 우정을 통한 인간애를 살펴보았다. 이 둘은 돈독한 우인 관계로서 연대가 돈독하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杉子라는 여성이 개입됨으로

* 본 논문은 2002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서 갈등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들의 우정은 이성간의 애정 앞에서 위기상황을 맞는다. 그러나 사네아쓰는 친구를 사랑하여 외국으로 떠나는 大宮를 통하여 배려를 토대로한 인간애를 나타내었고 野島를 통하여는 실연의 고통 속에서 결코 친구에게 미움이나 증오의 감정을 품지 않고 재기의 길을 선택하는 의지적 인간상을 보여주었다. 남녀의 애정을 통한 인간애는 기존의 남존여비 사상을 벗어나 여성의 운명을 소중히 여기는 진보적 여성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시대에 있어서 한 차원 높은 선각자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또한 사네아쓰는 「自我」에 대한 관심이 깊었는데 이는 톨스토이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강조에 부담을 느끼던 중 우연히 메테를링크를 접하고 그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생겨난 사상이다. 메테를링크는 운명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운명을 지배하는 강인한 내면의 자아를 설교했는데 사네아쓰는 이 사상에 강하게 매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大宮와 野島, 杉子 주요등장인물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방관하지 않고 성장, 성숙의 길을 포기않는 것은 이와 관련있다고 파악해 보았다.

『幸福者』에서는 『友情』에서 보다 더 심원한 사랑을 묘사했는데 이는 사네아쓰가 얼마나 종교적이고 진실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아가페의 사랑을 구현함으로써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성립하고자 했는데, 이 정신을 「新しき村」의 회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나의 메시지로서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스승(師)을 따르는 제자(自分)인 <나>는 작품 話者로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나>의 눈에 비쳐진 스승의 人間愛를 회상체로 그리고 있다. 스승과의 만남을 이루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 속에서 스승의 실제적 인간애를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성자 예수를 연상시키는 당시 유행했던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상이 투영되어 있다. 스승은 선행을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모함과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차원 높은 인간애를 보인다. 자신의 이기적 사랑을 버리고 타인의 죄와 허물을 수용하는 초극적 사랑을 통하여 사네아쓰는 또 하나의 인간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같은 시기에 「耶蘇」라는 작품을 쓴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신앙에 심취하여 있었던 사네아쓰는 신과 인간에 대한 열정적 사랑과!

관심을 토대로 「新しき村」를 창설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탁상공론의 인간사랑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협소한 무대를 뛰어 넘어 실제적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노동과 정신생활의 조화를 도모한 이상적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 사네아쓰의 실험정신었다고 생각한다.

< 目 次 >

| | |
|----------------------------|----|
| I. 序 論 | 1 |
| II. 本 論 | 5 |
| 1. 「友情」의 人間愛 | 6 |
| (1) 友情(男性과 男性) | 9 |
| (2) 愛情(男性과 女性) | 15 |
| (3) 自己愛 | 22 |
| 2. 「幸福者」의 人間愛 | 31 |
| (1) 「나와 너」의 사랑 | 33 |
| (2) 「초극적」 사랑 | 44 |
| 3. 현실적 적용으로서의 「新しき村」 | 49 |
| III. 結 論 | 57 |
| 參 考 文 獻 | 60 |
| <ABSTRACT> | 63 |

I. 序 論

武者小路實篤(1885-1976)는 白樺派의 지도적 작가로서 인간의 내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 인도주의적 휴머니즘 작가이다.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1894-1895), 러일전쟁(1904-1905)등의 여파로 몹시 암울했기 때문에 그의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당시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明治말기를 휩쓴 자연주의문학¹⁾은 시대적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무기력한 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 당시 사회는 전쟁에서는 승리했다고는 하나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빈부의 격차로 회의적 허무적인 침체된 사회였다.

이 즈음 문단에서는 島崎藤村(1872-1943)의 『破戒』, 『家』가 발표되고 田山花袋(1871-1930)의 『蒲団』, 岩野泡鳴(1873-1920)의 『放浪』 등이 발표된다. 夏目漱石(1867-1916), 森鷗外(1862-1922) 등의 여유파, 유태주의 경향을 띤 향락파 등의 운동이 있었지만 反自然主義가 아닌 非自然主義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자연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해소하지는 못하였다.

實篤는 톨스토이의 영향²⁾을 강하게 받고 나서 이를 계기로 문학의 길을 걷고자 결심을 굳힌다. 문학만이 우리의 강렬한 느낌을 표현하는 데에 적격이라고 생각한 實篤는 1908년(明治 41년) 『荒野』³⁾를 출판한다. 연이어 같은 성격을 띤 잡지인 『望野』⁴⁾, 『麦』⁵⁾, 『桃園』⁶⁾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1) 19세기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예사조로서 인간이나 현실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를 묘사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사회가 아직 봉건적인 잔재가 해소되지 않았고 신구가치가 부딪히는 인습타과의 문제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을 이룬 자연주의로 사회불안, 인습타과, 신분적 갈등을 다룬 사소설적 경향을 띠었고, 소재가 한정되었다.

2) 1903년, 實篤가 18세 때 숙부(勘解由小路資承)를 통하여 聖書와 톨스토이의 『我懺悔, 我宗教』를 접한다. 이로 인하여 實篤의 정신적 기초를 이루고 문학사상을 형성했다.

1904년 「平民新聞」에 게재된 톨스토이의 『非戰論』을 읽고 강한 영향을 받았다.

3) 『荒野』: 小説5편, 論文7편, 新體詩7편을 掲載

4) 『望野』: 武者小路實篤, 志賀直哉, 木下利玄, 正親町公和등이 활약한 잡지

함쳐서 1910년에는 『白樺』⁷⁾라는 제목으로 출간한다. 白樺동인들은 대부분 「學習院」 출신으로서 「자아긍정」, 「자기계발」, 「성장」에 지대한 의미를 두고 이상주의적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자아의 존엄성을 주장한다. 이들의 문학을 문학사에서 白樺派문학이라 통칭한다. 이러한 明治말기의 문학운동을 계승한 大正期の 젊은 작가들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생명의 환희를 누리도록 유도하는 사상들이 나오게 된다.

白樺派의 새로운 물결은 변화와 각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계에서도 각광을 받았다.⁸⁾ 實篤는 白樺派 작가를 대표하고 있지만 다른 작가들의 연구 자료에 비해 實篤의 연구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그 이유는 문학에서 중시하는 서경적 묘사가 결여되어 있고 또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 역시 다양하지 못한 탓으로 해석해 본다. 그러나 實篤는 문학적 가치에 대한 시시비비에 흔들림 없이 주관적인 사상을 작품마다 표현하고 있다. 톨스토이의 영향에 뒤이어 實篤는 1906년 메테를링크⁹⁾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자아에 대한 의식의 각성 및 「自己愛」사상으로 함축 해볼 수 있다. 그러나 「新しき村」¹⁰⁾가 창설되는 시기인 1918년(大正7년)의 작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인간존중」의 사상에 근거한 내용을 많이 추출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표면적으로는 메테를링크의 「自己愛」에 근거하는 것 같지만 톨스토이의 사상이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友』: 里見弴, 園池公致, 正親町実慶, 児島喜久雄, 田中雨村등이 활약한 잡지

6) 『桃園』: 柳宗悅, 郡虎彦등이 활약한 잡지

7) 『白樺』: 1910년 창간, 1923년에 폐간. 전기(1910-1913), 중기(1914-1918), 후기(1919-1925)으로 구분되며 중기 때에는 전성기였으며 문학, 미술(後期印象派의 繪畫)등 예술 전반에 걸친 종합적 잡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8) 「白樺派 문학」, 有精堂, 1982년, p.283

9) 메테를링크(1862-1949): 벨기에의 시인, 극작가, 수필가. 1911년 노벨문학상 수상. 철학적 성격의 작품을 썼으며 작품으로 『지혜와 운명』(1893), 『貧者の 寶物』(1896), 『꽃별의 생활』(1900)등이 있다.

10) 「新しき村」: 1918년 宮崎縣 兒湯郡 木城村 石河内に 實篤가 창설(共生農園).

그래서인지 「善」에 대한 추구는 實篤의 일생을 통해 변하지 않는 테마였다. 芥川龍之介(1892-1927)는 實篤에게 「문단의 天窓을 열어 짓히고 상쾌한 공기를 불어넣었다」¹¹⁾라고 격려하며 白樺派 문학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본고는 물질만능, 기계화, 정보화 시대 속에서 나날이 인간의 내면적 가치보다는 인간외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현대문명을 우려하면서 인간성 회복을 도모해보고자 인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소유한 實篤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서 實篤의 작품 세계와 활동을 더듬어보고 「人間愛」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한다. 본고에서 살펴보는 實篤의 「人間愛」의 성격은 단순한 휴머니즘이 아닌 자아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와 남을 배려하는 이타주의의 양자를 조화시킨 것으로서 그의 작품 속에 일관되게 나타나고있다. 聖人들의 「人間愛」와 비교하면 고차원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實篤는 「自己愛」를 통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 같다. 즉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다.

1919년(大正8년)은 實篤의 대표작 『友情』, 『幸福者』가 씌여 졌고 前年은 「新しき村」가 창설되었던 해로서 창작의욕과 왕성한 활동력을 보였다. 이 시기를 實篤의 작품활동의 초기¹²⁾라고 분류한다.

武者小路實篤의 「人間愛」를 알아보기 위해서 초기 작품인 『友情』, 『幸福者』를 분석하고자하며 그 실천의 場으로 「新しき村」운동을 주시하고자한다. 『友情』에서는 첫째 男性대 男性의 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野島와 大宮는 친구사이로서 신뢰를 토대로 한 우정의 모델로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杉子라는 한 여성이 개입됨으로 인해 우정은 고정불변이 아닌 동요를 드러내게끔 설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野島와 大宮는 어떻

11) 福田清人, 松本武夫, 『武者小路實篤篇』, 清水書院, 1990, p.67

12) 大津山國夫는 實篤가 日向의 「新しき村」(1925년)를 떠날 때까지의 시기를 초기로 분류하고 있다.

게 갈등을 극복하고 인간적인 사랑을 보이고 있는지 보고자 한다.

둘째 男性대 女性의 異性간의 사랑을 통한 人間愛를 살펴보고자 한다. 野島는 아름다운 여성 杉子를 사랑한다. 친구 大宮는 杉子를 사랑하지만 작품 속에서는 그 사랑이 처음에는 표면화되어 있지 않다. 한 여성을 사이에 둔 두 남성의 삼각관계가 연애를 둘러싼 갈등형태로 드러나 있는데 이성간의 참된 연애는 어떠한 것인지 작가의 의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셋째 나와남 즉 대타관계의 사랑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인 自己愛를 살펴보기로 한다. 實篤에 있어서 自己愛는 중요한 개념인데 自己愛의 모델로서 野島와 杉子, 大宮 등장인물 모두가 제시되어 있다고 본다. 그들은 어떤 형태로 자기애를 구현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幸福者』에 나타난 인간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幸福者』는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인간애를 드러내고 있는데 작품 속 중심인물인 스승(師)이 구현하는 人間愛를 살펴보고자 한다. 『幸福者』는 스승(師)을 따르는 제자(自分)이라 말하는 話者의 눈에 비쳐진 스승의 人間愛를 그리고 있다. 스승과 만남을 이루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 속에서 구현하는 스승의 인간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편의상 「나와 너」의 사랑과 「초극적」 사랑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 번째, 「나와 너」의 사랑이다.

너의 범주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계 속의 인간애 「나와 너」의 사랑으로 보고자 하여 이것은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를 적용한 것이다. 스승은 신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실천한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근본사상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두 번째로 「초극적」 사랑으로서 스승은 선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모함과 미움을 받게 되는 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더 차원 높은 사랑으로 승화시킨다. 자신의 이기적 모습을 버리고 타인의 죄와 허물을 수용하는 초극적

사랑을 통하여 實篤는 또 하나의 인간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런 사상의 실천적 場으로 「新しき村」가 형성되는데 實篤는 단순히 탁상공론의 인간사랑이 아니라 실제현실 속에 뛰어들어 노동과 정신생활의 조화를 도모한 이상적 공동체를 구상했다. 그래서 實篤의 인간애를 알 수 있는 「新しき村」운동도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本 論

1. 『友情』의 人間愛

『友情』은 1919년 (대정 8년)의 10월부터 12월에 걸쳐 大阪毎日新聞에連載되어졌던 소설이다. 전년에 「新しき村」가 건설되고 농작업과 동시에 집필되어졌다. 『友情』은 근대 일본 문학에 있어서 대표적 청춘소설이다.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實篤는 우정에 대하여 말하고자 했고 여기에 한 여성을 개입시켜 소설의 흥미를 가미시켰다고 볼 수 있다. 實篤의 대표작이라 일컬어지고 있으며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實篤의 처녀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お目出し人』은 단순히 연애소설의 차원에 머무르지만 『友情』은 우정과 연애를 동시에 다룸으로서 보다 갈등적 양상을 드러내어 그 작품세계를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낸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實篤는 「자아존중」, 「자기발전」이라는 이념을 사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건조한 관념적 내용이 아닌 그 저변에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의 인생론의 한 구절이다.

살아있는 기쁨은 사랑을 느끼는 데에서만 온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저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은 불행하다.

生きている喜びは愛からのみくるといっても誇張ではない何かを愛せずには人は生きてゆけないようにできている。ただ愛するものを持つことのできない人は不幸である。13)

13) 武者小路實篤, 「인생론, 愛について」, 1969, 新潮社, p.239. 필자역(*본 논문의 번역문은 전부 필자역임)

이 글을 통해 實篤가 단순한 사상가가 아니라 관계 속의 사랑을 중시하고 인간의 연대를 삶의 보람으로서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보다 감성적인 작가임을 알 수 있다.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톨스토이의 강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고 實篤의 작품에서 「사랑」이라는 테마를 제외 시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1864~69〉, 『안나카레니나』 〈1873~77〉 양대 걸작을 통해 소설가로서 명성을 얻었고 유족한 생활로 부족할 것이 없었으나 어려서부터 생각해 온 생의 목적에 대해서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맞게 된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무상 때문이기도 한데 과학, 예술, 철학 등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종교로 기울게 된다. 『참회』, 『교의 신학비판』으로 사상이 체계화되는데 이후의 문학과 삶은 완전한 기독교적인 삶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삶과 작품 속에 표현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인간의 最高善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상에서 톨스토이의 사상은 지극히 기독교적이며 희생과 헌신, 사랑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톨스토이가 천신만고 끝에 터득한 신의 사랑을 實篤는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여 体化하고 작품 속으로 투영한다. 實篤는 신을 인정하고 인간의 존재를 신과 연관시키고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찮은 존재가 아닌, 누구나 의미있는 존재라는 것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實篤는 기독교의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문학의 상당부분에서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을 투영하고 있다. 實篤의 종교적인 면을 『友情』에서도 볼 수 있다. 우선 神이라는 어휘가 상당수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으며 또한 「祈」(いのり)라는 단어도 빈번히 쓰여지는데 『幸福者』, 『耶蘇』, 『友情』을 집필한 이 시대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신앙은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實篤만의 독특한 성격의 작품을 생산했다고 볼 수 있다. 드퀸

시¹⁴⁾라는 19세기 영국의 문예 비평가는 문학이란 교훈과 쾌락이 아닌 힘을 주는 것만이 참 문학이라 했다. 여기서 힘이란 「진리에 대한 공감」을 말한다. 白樺派의 전반적 경향이 「인간 존중」이며 實篤의 문학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참된 문학이라는 정의에 부합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實篤는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이다.

「神は愛なり」¹⁵⁾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제시하는데 그 사랑의 근거는 톨스토이 나아가 성서적 사랑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사건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포용한다. 實篤의 사상 속에는 이런 사랑의 사상이 低流하고 있다. 實篤의 작품에는 미움이나 증오가 없다. 자기비하나 멸시도 없다. 『友情』속에서도 野島는 연적이 된 친구 大宮에게 증오를 느끼거나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는다. 그 점이 實篤의 문학을 밋밋하게 만들고 갈등을 토대로 전개되는 소설이 구조로서는 박약한 점이 많다. 實篤는 인간에게 내재한 선과 악이라는 양면성을 다루는 작가가 아니라 악을 제외한 선만을 추구함으로써 「사랑」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것은 實篤의 문학의 결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근대문학이란 권선징악에서 탈피하여 한 인간내부에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갈등하고 변민하는 면모를 보다 입체적으로 다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14) 드킨시(1785-1859):영국의 비평가, 소설가. 1821년 「런던 매거진」에 「어느 아편 중독자의 고백」 독일의 소설을 번역하는 일과 함께 소설, 수필가로서 저작을 남겼다.

15) 武者小路實篤, 「인생론, 愛について」, 新潮社, 1969, p.111

(1) 友情(男性과 男性)

작품의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實篤는 남성간의 우정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묘사하려고 했다. 이 작품은 상편과 하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편에서는 상세하게 사건전개식으로 인물의 행동과 말을 묘사하고 하편에서는 마지막 장을 제외하고는 그 잡지에 게재된 大宮와 杉子の 편지왕래로 구성되어 있다. 상편에 쓰여지지 않았던 大宮와 杉子와의 심리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友情』에서는 野島가 實篤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는데 하편에서는 野島는 사라지고 大宮가 實篤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友情』의 테마는 다른 작품에서도 흔히 다루고 있는 남녀의 사랑이다. 이 사랑 속에 野島와 大宮의 우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實篤는 우정을 통하여 인간애를 묘사하고 있는데 野島가 大宮에게 갖는 우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등장하는 大宮는 實篤가 학습원에서 만나 절친하게 지냈던 志賀直哉¹⁶⁾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本多秋五¹⁷⁾는 大宮의 성격이 志賀直哉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절친한 우정의 모델로서 志賀直哉가 설정되어 있고 실제 사실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志賀直哉는 친구로서 實篤에게 이상적인 친구로서 인식되어져 있다고 본다. 野島는 大宮를 친구로서 사귀면서도 존경하는 면을 보인다. 이것은 현실에서 志賀直哉와 實篤와의 관계와 같다. 野島보다 모든 면에 뛰어난 大宮이다. 野島는 大宮가 자신에게 과분한 친구라고 생각하며 고마워한다. 언제나 의지할 수 있고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도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친구이다.

16) 志賀直哉(1883-1971):1889년 學習院 初等科에 入學, 1900년 内村鑑三(일본의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과 만나 7년간 교제, 1902년 實篤와 中等科 동급생이 됨. 그 후 70년간 實篤와의 지속된 교제. 「暗夜行路」의 대표작을 비롯, 12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

17) 本多秋五(1909-2001):戰後를 대표하는 문예평론가,1932년 동대국문과졸업 후 「文藝史 研究の方法に就いて」를 발표, 전시 중에는 톨스토이에 관한 연구, 전후 「근대문학」(잡지)에서 활동, 1957년 후에는 휴머니즘을 토대로 한 중후한 평론으로 활약, 명치대 교수(1969-1979), 「本多秋五全集」(전16권)(1999)발표

野島는 친구 仲田의 여동생 杉子를 사랑하게 된다. 杉子에 대한 사랑이 싹트면서 島野 앞에 펼쳐진 세계는 모두 아름답게 변모한다. 연애에 빠진 사람의 심경을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어쨌든 그는 일본 여자들 중에, 특히 자신에게 가까운 곳에 스기코와 같은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ともかく彼は日本の女のうちに、ことに自分の近いところに杉子のよ
うな女のいることを讚美し、感謝したい氣になった。¹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여겨지며 자신이 杉子에 비하여 열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신감은 없었지만 자신을 성장시킬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도한다. 왜냐하면 당시 杉子の 나이는 열 여섯으로 결혼을 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島野는 杉子와의 결혼을 꿈꾸면서 새로운 세계를 몽상한다. 여기서도 實篤의 자아성장과 자아계발이라는 주제의식을 느낄 수 있다. 杉子에 대한 사랑을 친구 大宮에게 고백하게 되는데 大宮도 적극 野島를 이해하고 협조한다. 野島는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상황을 大宮에게 고백한다. 숨김없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 말할 수 있는 친구이다. 다음 글을 통해 절친한 친구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집에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가장 친한 오오미야를 방문하기로 했다. (중략) 서로 존경하고 있다. 오오미야는 특히 그의 작품에 두터운 호의를 보였고 세상이 험담을 할 때 낙심하는 그를 위로하는데 애썼다.

彼は家にじっとしてはいられなかった。彼はいちばん親しい大宮を訪ねることにした。 (중략)お互いに尊敬していた。大宮はことに彼の作物に

18)武者小路實篤, 「友情」, 「武者小路實篤集7」, 新潮社, 1995년, p.171

厚意を見せ世間が悪口を言う時は、さびしがる彼を慰めることに骨を折った。19)

오오미야가 있는 곳에 가면 그는 항상 가슴이 탁 트였다. 좋은 벗을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いつでも大宮の処へ行くと彼は胸がすいた。よき友を有することを感謝しないではいられなかった。20)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野島와 大宮간의 우정은 편안하고도 삶의 안식처와도 같은 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大宮는 서양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大宮가 외국으로 가는 날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역에 나와 있었으나 野島는 오로지 杉子에게 시선을 주고 있었는데 杉子는 야윈 듯한 모습으로 쓸쓸하게 서서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杉子の 시선은 오직 大宮에게 있었다. 여기서 杉子의 사랑은 大宮에게 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杉子の 태도를 보면서 野島는 모종의 상실감을 느낀다.

『友情』의 상편부분이 끝나면서 하편에서는 우정과 사랑의 갈등이 전개된다. 상편보다 하편에서는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野島는 출국일 이후 杉子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키고 자신도 杉子에 대한 사랑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杉子라는 여성이 분명히 자신의 의사를 밝힘으로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野島는 사랑을 성취할 수 없다고 해서 우정을 파괴시키지 않고 또 다른 출발을 모색함으로 野島는 大宮에게 변함없는 친구로서의 우정을 표현한다. 다음 글을 통하여 野島는 복수나 증오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 앞의 책, p.171

20) 앞의 책, p.181

언젠가 산 위에서 너희들과 악수할 때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때까지는 그대여,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자.

いつか山の上で君達と握手する時があるかも知れない。しかしそれまでは君よ。二人は別々の道を歩こう。21)

두 번째로 大宮가 野島에게 보이는 우정이다. 大宮는 野島에게 순수한 인간의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우정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大宮는 野島보다 모든 면에 뛰어나 있으나 野島가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등한히 하는 면은 전혀 없다. 오히려 野島의 문제를 들어주고 작가로서 앞날을 격려해주고 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친구를 선택하고 하는 이기적 형태와는 달리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내고 섬세하게 배려한다. 그러던 중 野島에게서 杉子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게 되는데 점차 杉子が 사랑하는 사람은 野島가 아니라 자신임을 직감하게 된다. 다음은 鎌倉의 별장에서 탁구경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杉子は 大宮앞에서 수줍음을 보인다. 그것은 大宮를 이성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미야는 정말로 잘하네요。」라며 스기코는 조금 말을 더듬으면서 정말로 감탄한 듯이 타케코에게 말하고, 들뜬 얼굴에 흐트러진 머리 카락을 쓸어 올렸다.

「大宮さんは本当にお上手ね。」と杉子は少しどもりながら本当に感心したように、武子に云って、上気した顔に乱れかかっている髪をなで上げた。22)

자신도 杉子の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어느 날 파리 행을 결심한다. 그것은 大宮에 있어 큰 갈림길이었을 것이다. 파리 행의 선택은 자신으로서는 「쟁취」가 아니라 「버림」의 길이었기 때문이

21) 앞의 책, p.230

22) 앞의 책, p.212

다. 선택하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하는 것이기에 大宮의 내면에는 거부의
몸부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음은 大宮가 서양으로 가려고 할 때 杉子
와의 대화이다.

「저도 가고 싶어요. 뭐든 좋으니 거기에 가면, 아무거나 보내줘요..」
스기코는 응석부리듯 말했다. 「나는 게으르니 약속할 수 없습니다.」
「私もゆきたいわ。何でもよろしいからあちらにいらしたら、何か送って頂戴ね。」
杉子は甘えるように云った。「僕は不精ですから御約束は出来ません。」²³⁾

大宮의 태도에서 친구를 향한 우정이 깊이 깔려 있다. 자신의 냉정한
대답을 통하여 大宮에게 호감을 보이는 杉子를 단념시키려 하고 있다.

이 여자는 친구의 연인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사랑해
서는 안 된다.
この女は友の恋人だ。自分は愛することは禁じられている。すきになってはいけな
い。²⁴⁾

여기에 大宮의 깊은 우정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實篤의 우정의 진
정한 의미를 깨닫게 한다.

남자가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을 배반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자신
은 친구를 위해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男が自分を信じるものを裏切ることが出来るか。出来ない。自分は友の為に去るの
が本当と思った。²⁵⁾

23) 앞의 책, p.212

24) 앞의 책, p.223

25) 앞의 책, p.224

여기에 實篤의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미래의 방향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가 實篤의 인간애에 근거한 사상이 자연스럽게 묘사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大宮은 친구로서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정을 지키려한다. 그러나 杉子の 애절한 구애는 계속된다. 野島와의 두터운 우정 때문에 자신을 거부하고 있음을 추측하고 杉子は 大宮에게 자신이 野島를 사랑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우선은 野島의 사랑이 제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第一私の心に野島さまの愛が少しもひびかないのでかります。」²⁶⁾

「저는 野島의 아내는 죽어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私は野島さまの妻には死んでもならないつもりでおります。」²⁷⁾

만일 자신이 끝까지 杉子の 사랑을 거부해서 杉子が 野島를 사랑할 수 있다면 大宮은 응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大宮를 통하여 實篤의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갈등을 처리하고 미래의 방향을 구성함에 있어 實篤는 인간애에 근거한 사상으로 일관한다. 매몰차게 타인을 짓밟거나 거짓됨이 없이 순수하고 아름답게 사건을 이끌려고 노력한다. 많은 소설이 애정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사랑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는 데 비하여 이 장면에서는 사랑보다 친구에 대한 도덕적, 인간적인 모습으로 實篤의 독특한 인간애 중심의 사상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앞의 책, p.222

27) 앞의 책, p.217

(2) 愛情(男과 女)

자연이 얼마나 풍성하게 인생을 만들었는가를 가장 강하게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연애이다.

自然がいかに豊かに人生をつくっているかを崔も強く、露骨に示しているものは恋愛である。28)

위 글은 實篤의 인생론에서 밝히고 있는 實篤의 연애관으로 남녀의 사랑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찬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일본문단에서 낭만주의가 충분히 개화하기 이전에 자연주의로 이행되었던 탓에 애욕 혹은 치정은 빈번히 그려져 있지만 애정소설로는 이렇다 할 정도의 것이 없는데 연애관의 관념은 北村透谷²⁹⁾에 의하여 1887년대에 처음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문단에서는 武者小路實篤의 처녀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お目出き人』을 연애소설이라 관명한다. 實篤는 「사랑」에 대하여 肯定的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같은 白樺派의 有島武郎의 「사랑」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有島武郎의 愛는 인간의 本能的인 사랑을 그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갈등과 복잡한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데 비하여 實篤는 순수하고 솔직한 사랑을 나타내고자 했다.

實篤가 경험한 실제적 사랑은 16세 때부터 19세 때 첫 사랑으로 「お貞」를 짝사랑하였다. 『お目出き人』에서 「月子」는 고향에 가버리는데 여기서 「お貞」를 말하고 있다. 實篤에게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었다. 두번째는 まき였으며 그 모두가 정신적(플라토닉) 사랑이다. 『お目出き人』에서와 『友情』의 杉子は 實篤가 청년시절 알고 있었던 日吉たから

28) 武者小路實篤, 「인생론, 愛について」, 新潮社, 1969, p.63

29) 北村透谷(1869-1894) : 明治기의 시인, 평론가, 서양의 낭만주의를 배우고 정신의 자유를 높이 주장, 당시의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장편시 「楚囚之詩」, 劇詩 「蓬萊曲」, 「内部生命論」 등의 평가를 발표하였다.

는 소녀이다. たかは 實篤의 22세부터 5, 6년간 계속하였던 사랑으로 그동안 짝사랑하였던 것과는 달리 결혼의 뜻을 표현했으나 거절당하고 만다.

『お目出き人』, 『友情』에서의 사랑하는 대상은 세 번째의 사랑이다. 28세, 竹尾房子와 결혼할 때까지 계속된 사랑이다. 『友情』에서 주인공의 野島는 杉子を 무척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친구 仲田의 여동생을 만나게 됨으로 野島는 사랑이 짝트게 되는데 순수하면서도 정열적이다. 한편 大宮역시 杉子を 사랑하는데 이들의 사랑의 양상을 보면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 大宮가 갖고 있는 杉子の 사랑에서 인간애를 맛 볼 수 있다. 이성간의 사랑에서 인간애를 파악하기란 다소 애매한 면이 있지만 實篤는 野島가 杉子を 사랑하다가 실패한 면을 드러내어 인간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절실하게 설명하고자했다.

野島는 杉子を 만나고 나서 杉子を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객관적 설명이나 해석이 없는 정열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인을 천사처럼 미화하여 아름다움의 극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결혼으로 이루어질 대상으로 간주하고 신이 부여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신은 나에게 이 여자를 내려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神は自分にこの女を与えようとしているのだ。30)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杉子を 신이 부여해준 사람이라고 간주할 정도로 자신에게 긴밀한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스기코와 부부가 될 것을 생각한다. 그것은 낙원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30) 武者小路實篤, 「友情」, 「武者小路實篤集7」, 新潮社, 1995년, p.182

彼は杉子と夫婦になることを考える、それは樂園にいることを考える
ようなものだった。31)

杉子와의 사랑이 성립되는 꿈을 꾸게된다. 杉子에 대한 사랑은 일방적이며 다소 몽상적이다.

『お目出し人』에서도 동일한 점을 볼 수 있는데 객관적인 판단이나 조건을 생각지 않는다. 사랑하는 대상을 장래 배우자로 간주한다. 기필코 결혼할 대상,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처럼 간주한다. 오직 단 한 사람만을 고집하는 유일성의 성격을 보인다.

쓰루가 없다고 한다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다.
鶴が居なくとも結婚したいとは夢にも思ない。32)

鶴를 사랑하고 있기에 반드시 결혼하리라고 다짐하는데 이것은 연애와 결혼을 일치시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白樺派다운 사랑이다. 연애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大宮가 갖고 있는 杉子에 대한 사랑이다. 大宮의 杉子에 대한 사랑은 野島처럼 표현하지 않았을 뿐 내심 杉子를 사랑하고 있었다. 杉子は 아름다웠고 大宮의 마음도 杉子에게 이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野島가 열렬히 杉子를 사랑하면서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大宮는 杉子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다. 杉子를 사랑하는 마음은 野島 못지 않게 大宮도 갖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어느날 大宮는 杉子の 손가락이 아름답다고 한마디 건넨다. 아직까지 野島는 杉子の 손가락까지는 유심히 보았던 적이 없었다. 늘 杉子에게 냉담하면서도 大宮는 杉子の 신체의 일부

31) 앞의 책, p.175

32) 「現代日本文學大係33」, 『お目出し人』, p.175.

분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동반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大宮는 杉子를 무척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면 깊숙히 간직해 두었을 뿐이다. 표면화시킬 수 없는 사랑이다. 實篤는 大宮를 통하여도 결혼과 사랑은 일치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제시하고 있다. 파리행을 결심하면서까지 자신의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연애를 묘사하고 있다. 친구가 杉子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혼할 수 없다.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연애도 불가능하다. 연애의 생성을 금하는 길은 떠나는 것이라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大宮의 사랑도 이런 면에서 무척 순수하고 깨끗하다. 杉子の 사랑은 이런 大宮의 차원 높은 인격에도 매료되었을 것이다. 탁구를 할 때도 大宮는 놀라운 실력이었고 작가로서도 명성이 있었고 杉子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남성이었다. 그러나 大宮는 외국으로 떠나는데 이 또한 杉子와의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연애를 포기하고 마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결혼의 신성함을 느끼게 하고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차원 높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오오미야는 노지마와 달리 남성측에서 「여자의 운명을 우선으로 하는 사랑」을 말하고, 상대의 입장에 서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大宮は野島と違って、男の側から言って「女の運命を第一に氣にするのが戀」と言い、相手の立場に立ち、相いやる心を持っている。³³⁾

위 글을 통하여 大宮는 섬세한 감성을 소유했고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함을 알 수 있다.

33) 山崎誠, 有精堂選書 30, 「白樺派作家論」, 有斐閣, 1981년, p.224

여인을 사랑하려면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과 여인의 운명에 상처를 남기는 것을 두려워 해야한다.

女を愛するならば本當に愛しなければいけない。自分の運命と女の運命を傷つけるのを恐れなければいけない。³⁴⁾

위 글은 『幸福者』에서 스승을 통하여 實篤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다. 實篤는 궁극적으로 여성을 존중하며 사랑에 대하여 진지함을 알 수 있다. 實篤는 여성을 인격체로서 대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성간의 사랑의 형태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다. 實篤의 연애관은 남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아름다운 정신적 교감위에 결합되어지는 사랑을 표현하고자했다. 『愛と死』에서는 『友情』, 『お目出し人』와 달리 두 사람의 사랑이 성립된다. 다음은 『愛と死』에서 남녀간의 사랑의 기쁨을 표현하는 구절이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의 기쁨이 주어진다. 가장 큰 기쁨의 하나에 나는 포로가 되었다.

人生にはいろいろの喜びが与えられている。しかしその最も大きな喜びの一つに僕は捕虜になった。³⁵⁾

나쓰코는 지금에 와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내가 있는 곳에 나쓰코가 있고, 나쓰코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나는 행복의 절정에 있었다.

夏子は今や僕には欠くことの出来ない存在になった。。。僕の居るところには夏子が居、夏子の居るところには僕が居た。。。僕は幸福の絶頂にいた。³⁶⁾

이렇듯 『愛と死』의 작품에서는 이전에 표현되지 않았던 사랑에 대한

34) 武者小路實篤, 「幸福者」, 「武者小路實篤集7」, 新潮社, 1995년, p.83

35) 武者小路實, 「愛と死」, 「武者小路實篤篇7」, 新潮社, 1995, p.248

36) 앞의 책, p.248

기쁨과 완성을 표출했으나 작가는 여기서도 「죽음」을 개입시켜 여기서도 성립되지 않은 사랑을 그리고 있다. 『友情』이 사랑과 우정이라는 테마라고 한다면 『愛と死』는 사랑과 죽음이라는 보다 완숙한 면을 보이고 있다. 『愛と死』에서는 夏子の 죽음을 통하여 인생의 심오함을 느끼게 한다. 『友情』은 작가가 34세 때의 작품이고 『愛と死』는 그 후 20년이 경과한 후의 작품으로서 實篤가 유럽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쓰여졌다. 『友情』은 「新しき村」를 창설한 이듬해의 작품이고 『愛と死』는 「東の新しき村」를 창설한 해의 작품으로 「新しき村」와의 묘한 연관성도 느낄 수 있다.

實篤의 연애작품에는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友情』, 『お目出し人』, 『愛と死』의 작품이 그러하다. 사랑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아이러니칼하게도 實篤의 연애소설은 실연, 혹은 파국을 맞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友情』에서도 野島의 사랑은 杉子が 野島를 거부함으로써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러한 작품을 그리고 있는 배후에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자신의 경험이 관련되었다고 보는데 제1차 세계대전, 러일전쟁 등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꿈이 성취되고 목표를 달성시키는 성취감을 갖는 일보다는 불가능, 무능력을 느끼게 하였을 일이 더욱 많았는지도 모른다. 또한 청춘의 남녀의 사랑을 완성시켜주기엔 사회적 여건이 불리했기에 實篤는 작품을 통하여 사회와 개인의 사생활 속에서 아픔이나 상처를 갖고 있는 많은 독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인생론에서 다음과 같이 연애를 설명하고 있다.

연애는 인생에서 유일한 일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恋愛は人生唯一の仕事ではないことはたしかだ。37)

37) 武者小路實篤, 「인생론, 愛について」, 新潮社, 1969, p.64

이렇듯 實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에너지를 연애에만 주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설사 운명적 연애를 하다가 실패 하더라도 생의 의미를 잃을 정도로 상실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기에는 實篤의 실연체험이 배경에 깔려있다. 사실 實篤는 연애의 좌절을 통해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했으며 심오한 인격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實篤의 인간이 지닌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實篤는 실연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다시 도약하는 실존적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實篤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인성을 엿 볼 수 있다.

인간은 대자연(우주) 앞에서 지극히 미약한 존재로서 생로병사 앞에서 속수무책이라 할 수 있는 유한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우주에 그냥 내동댕이쳐진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인 강한 힘에 연관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다음은 자신의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實篤의 사상을 표현한 글이다.

私の力はこれっきりです。あとはあなたにお任せます。神よ。というに氣持なれるのだ。38)

나의 힘은 이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당신께 맡깁니다. 신이여 라는 기분이 되는 것이다.

實篤는 가시적 세상 뿐 만이 아니라 비가시적 세상까지 바라보는 통찰력을 지녔다고 보인다. 초월적 힘에 의지하여 그 힘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희구함으로써 안정감을 누리하고자한다.

38) 앞의 책, p.68

실연한 것은 반드시 긴 안목으로 보아 불행이라고 만은 할 수 없다.

失戀したものは 必ずしも 長い目で見て不幸ではない。39)

이 글에서 實篤는 감정이나 환경에 지배받아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약한 인간이 아닌 자기가 처한 상황 설령 그것이 불행이라 하더라도 이를 자아 계발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강인한 인간을 창출하고자 한다. 연애에 지나친 비중을 두고 그 부정적 결과로 좌절하지 않도록 했으며 사랑의 성립, 실패에 관계없이 인간 그 자체(주체)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3) 自己愛

實篤는 톨스토이의 사상에 깊이 심취되어 감동한 바 있었으나 기독교적인 사상을 강하게 주장하는 톨스토이에게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톨스토이와 實篤의 이질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톨스토이는 기독교 신자로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남은 삶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였는데 實篤는 이런 신앙의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행위는 實篤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그리하여 톨스토이에게서 압박감을 느꼈고 上田敏을 통하여 메테를링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사상은 타인을 사랑하기에 앞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애에 근거를 둔 사상이었다. 實篤의 自己愛의 사상은 메테를링크의 『知慧와 運命』이라는 수상집을 읽고 난 후에 생겨난다. 즉 메테를링크의 자애에 대한 사랑은 實篤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이제까지 경도되었던 톨스토이로부터 메테를링크쪽으로 이행한다. 작품은 낙천주의를 지향한 것으로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 자신 안에 있으며 자기 의지의 사용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39) 앞의 책, p.64

다음 글을 통하여 實篤는 메테를링크의 영향을 얼마만큼 깊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實篤가 메테를링크를 통해 더욱 사색적이 되고 사고의 폭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게 하는 문장이다

그러나 만약 「지금의 너에게 있어서 톨스토이와 메테를링크에서 어느 쪽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할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즉시 「메테를링크 쪽이」 라고 대답할 것이다.

しかしもし「今の君にとってトルストイとマーテルリンクとどつちがいろーのことを考へさせる?」と聞く人があつたとすれば自分はすぐ「マーテルリンクの方が」と答へるであらう。⁴⁰⁾

위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實篤는 메테를링크에 더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本多秋五는 實篤가 「자기희생」 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기발휘」 로 완전 탈바꿈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강하게 자기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⁴¹⁾

이렇게 自己에 대해 눈을 뜨면서 인간의 존재가치는 自己를 충분히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전반적 활동을 통하여 이를 나타냈다. 白樺의 지도적 작가인 實篤는 白樺의 특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는 자기를 살린다라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자기를 충분히 살리는 일을 바라고, 타인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白樺의 나아갈 방향이며 인간의 생명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형편에만 맞추지 않고 모든 인간이 자기를 충분히 살리는 일을 바라고 있다. 그것이 白樺라 해도 좋을 것이다.」⁴²⁾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實篤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존의 시간을 무의

40) 『6호감상(3)』, 1913, p.524.

41) 本多秋五外4人, 「現代日本文學大系79」, 筑摩書房, 1972, p.45

42) 武者小路實篤, 「その人と作品の解説」, 1994, p.231.

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닌 자기의 역량을 크게 발휘하며 살기를 기대한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나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돕는 것임을 강조한다. 같은 白樺派 작가인 有島武郎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산을 소작인들에게 나누는 인간애를 드러냈으나 자기에 대한 인식은 實篤와 상당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그의 죽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923년 유부녀와의 자살을 시도함으로써 생을 마감한다. 이는 實篤의 생명의 찬미와 성장, 발전과는 차원이 다른 어두운 양상을 그의 末路에서 나타내고 있다. 實篤의 경우에는 톨스토이를 통하여 생성되었던 인간애가 자기라는 이기적 관념 속에서도 부정적 모습이 아닌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글을 통하여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이기적인 인간의 최후는 사멸이다.

利己的な人間の最後は死滅である。⁴³⁾

實篤의 자기애는 자신을 사랑함과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칫하다가는 타인에게 무심하거나 나아가 불이익을 초래하기 쉬운 일인데 實篤는 이기적 인간에 대한 警策을 하고 있다.

인류의 성장과 충돌하는 개인주의자는 줄기를 떠난 가지, 가지를 떠난 잎의 개인주의자이다.

人類の生長と衝突する個人主義者は幹をはなれた枝、枝をはなれた葉の個人主義者である。⁴⁴⁾

43) 武者小路實篤, 「인생론, 愛について」, 新潮社, 1969, p.72.

44) 「白樺派 문학」, 有精堂, 1982년, p.215.

이 글을 통하여 實篤가 말하는 개인주의는 편협 되고 협소한 이기주의가 아닌 다른 조직체계와 밀접한 상호 연대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實篤가 자기라는 의식으로 폭을 좁혔던 까닭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의식했다는 實篤의 솔직한 고백도 들을 수 있다.

내가 톨스토이 주의에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소위 불교나 무사도의 감화를 받지 않았다면)또한 우리들 계급인들이 세상을 지금만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것을 지금처럼 주장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私がトルストイ主義にいじめられなかったら(所謂仏教や武士道の感化を受けなかったら)また私たちの階級の人が世間を今ほど恐れていないならば私は「自己のため」いふことを今の程度に主張することはしなかったでせう。」⁴⁵⁾

實篤는 메테를링크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의 사상을 섭렵했음을 알 수 있고 톨스토이, 불교, 무사도⁴⁶⁾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일본사회에서는 1910년 大逆事件으로 12명에게 사형을 집행하였다. 조선합병을 하여 천황암살을 기도하였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검거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었다. 實篤는 자기=인류의식으로 표현하므로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서 탈피하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다. 사회문제를 발설하여 자신의 세계를 간섭받고 싶지 않았다.

달리 스승을 두지 않았던 實篤였으나 夏目漱石만은 공경을 하였다고 한다. 白樺의 창간호의 권두문에 『「それから」就にて』에 주인공의 행동에 공감을 표하면서 「自然」과 「社會」의 조화를 언급하며 「自然」이 사회

45) 谷澤永一, 武者小路實篤の思考態度, 關西大學,文學論集第7권4号, 1958, p.297

46) 武士道는 封建制度에 의해서 생겨난 特權階級の 무사들의 共通的인 行動規範을 말한다. 明治시대에 新渡戶稻造 『武士道』를 써서 일본정신으로서 무사도 정신을 고취시키려고 했다.

를 포용할 것을 언급한 것을 보아 實篤는 자연 속에 모든 것을 다루고자 했다. 자아의식이 강하고 자기애에 근본사상을 두고 있으나 자연의 의지에 따르고자한다. 實篤는 사회의 제 문제에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면은 조금 빈약하다고 보아진다.

『友情』에서 등장인물 속에 자기애 사상이 심도 있게 내포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각 인물을 통하여 「자기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野島의 자기애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野島는 작가로서 성공하고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 다음 글에서 세상여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세상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사상의 폭풍우가. 그 한 가운데에 한 그루의 거목으로 스스로 일어서서, 한 걸음도 그 폭풍우에 자신을 양보하지 않는, 그런 힘을 원했다.

世界には嵐が吹きまくっている。思想の嵐が。その真唯中に一本の大樹として自分が立ち上って、一步もその嵐に自分を譲ゆずらない、その力がほしかった。⁴⁷⁾

위 글 속에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자아를 소유하기를 희망하는 實篤를 느낄 수 있다.

野島의 杉子에 대한 사랑의 저변에는 강한 자기애가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杉子를 단순한 결혼 배우자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더욱 값진 삶으로 만들고 활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로서 杉子라는 여성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성장하는 일을 원한다.

人類は生長することを慾するものだ。⁴⁸⁾

47) 武者小路實篤, 「友情」, 「武者小路實篤集7」, 新潮社, 1995년, p.173

48) 武者小路實篤, 「인생론, 愛について」, 新潮社, 1969, p.65.

위 글을 통하여 實篤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정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변화, 발전, 나아가 진취적 의욕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념은 野島의 연애관에도 잘 나타나있다.

野島는 청춘의 열정적인 사랑을 하면서도 杉子에 대하여 단순한 사랑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녀를 통하여 보다 생산적 에너지를 얻고자했음을 알 수 있다.

스기코는 그가 하는 일을 절대적으로 믿어주어야만 하였다. 세상에서 노지마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주었으면 했다. 그의 일을 이해하고, 찬미하고.....

杉子は彼のすることを絶代に信じてく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世界で野島程偉いものはないと杉子に思ってもらいたかった。彼の仕事を理解し、讚美。49)

野島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인물이다. 연애를 통해서도 자아의 성장을 기대하는 유형으로 자기애의 화신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お目出し人』에서도

아무리 외로워도 자아를 희생하면서까지 쓰루를 얻으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루 세 끼 식사를 두 번으로 줄이더라도, 어떤 집에 살더라도 쓰루 부부가 되고싶다. 그러나 자아를 희생하면서까지 쓰루와 하나가 되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いくら淋しくとも自我を犠牲にしてまで鶴を得ようとは思わない。三度飯を二度にへらしても、如何なる陋屋に住もうともと鶴夫婦になりたい。しかし自我を犠牲にしてまで鶴と一緒に成ろうとは思わない。50)

49) 武者小路實篤, 「友情」, 「武者小路實篤集7」, 新潮社, 1995년, p.173

實篤는 육체적 희생이나 물리적 환경의 불편함 따위는 견딜 수 있지만 자기에 대한 인식을 배제한 이성간의 사랑, 즉 정신적 교감이 없는 사랑은 원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세계를 보다 향상시키고자 했으며 어떤 상황에도 미동하지 않는 강한 자아를 소유하기를 기대한다.

위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實篤는 「成長」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모든 사건은 진보를 위한 받침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사고방식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개인주의자이다. 그래서 자기도 타인도 똑같이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듯이, 타인을 역시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한다. 나는 내가 타인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동시에 타인을 자신의 희생물로 삼고 싶지는 않다.」⁵¹⁾

杉子の 거부로 실연을 당했을 때도 강한 자기에 있었기 때문에 좌절보다는 재기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다음은 野島가 실연을 당했을 때 大宮에게 쓴 편지이다.

앞으로 때때로 쓸쓸해질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죽어도 자네들에게는 동정을 받고 싶지 않다. 나는 혼자서 견뎌낼 것이다.

今後も僕は時々淋しいかも知れない。しかし死んでも君達には同情してもらいたくない。僕は一人で耐える。⁵²⁾

언젠가는 더욱 힘차게 일어날걸세.

いつかはさらに..起き上がる。⁵³⁾

50) 「現代日本文學大係33」, p.164

51) 白樺, 1911년 8월 8일 「個人主義の道德」

52) 武者小路實篤, 「友情」, 「武者小路實篤集7」, 新潮社, 1995년, p.230

53) 앞의 책, p. 230

무언가를 상실 하였을때 野島는 좌절과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여유로운 성품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野島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實篤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기애의 모델을 볼 수 있는데 實篤는 설령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재생 재창조를 하여 자신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삼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두 번째 杉子の 자기애이다.

작품의 시대적 상황은 大正期 초반기로서 봉건주의적 가부장 제도의 잔재가 농후한 시대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권리와 주장은 수용되기 어려운 시기였는데 『友情』에서는 杉子が 상당히 현대적인 선각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實篤는 자아에 대한 존중을 여성에게도 부여함으로써 남녀의 이상적 공동결합체로서 연애 혹은 결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明治시대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신은 大正 데모크라시⁵⁴⁾운동에 한 몫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野島의 구애를 받고는 **대해 앞에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힘**으로서 여성의 자아를 주장하는 **신여성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杉子が 大宮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인데 杉子は 자신이 野島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大宮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다.

무엇보다도 노지마씨의 사랑이 저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第一私の心に野島さまの愛が少しもひびかないのであります。55)

노지마씨에게는 가능한 친절을 베풀고, 존경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54) 大正데모크라시(大正デモクラシー)는 大정기를 중심으로 정치, 사회, 문화의 각분야에 걸쳐 한 차원 향상시킨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적 풍조이다. 1918년 일본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정당내각이 발생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개인의 성격이나 인격, 사상을 존중하는 사고방식이 요청되었다.

55) 앞의 책, p.222

그 이상 할 수 없는 것을 일을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野島さまにはできるだけ親切にもいたしますし、尊敬もいたします。ですがそれ以上のことはできないことを罪だと思いません。56)

이렇게 杉子は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거리낌없이 표현할 수 있는 강한 자아의식을 갖고있으며 확실한 행동력으로 자기애를 실현시키고 있는 현대적 여성의 모델로서 설정되어 있다.

野島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의리와 인정이라는 봉건적 사슬에 얽매인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大宮에게 밝히면서 남성에게 적극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實篤는 여성의 능력과 재능을 비하시켜 매장시키는 봉건적 여성관을 과감히 탈피하여 여성도 하나의 개체의식을 갖춘 인간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기를 기대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도 자기애가 필요했고 작품 속의 杉子は 강력한 자기애의 소유자이다. 『お目出き人』에서도 여주인공 鶴에 대해서도 강력한 자기애를 소유한 인간으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아가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만큼의 용기는 없다.

自我のない人に自分の心の秘密を人にもらすだけの勇氣はない。57)

實篤는 반려자가 될 여성은 확실한 자아의식을 갖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자아가 없는 사람과는 대화의 문을 열어 정신적 교류를 나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實篤는 어떤 상황에도 정신세계가 함몰할 수 없으며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이기적 자아가 아닌, 하등 차원과 다

56) 앞의 책, p.220

57) 「現代日本文學大係33」,p.178

른 생동감 넘치는 활력 있는 인간 생활을 위한 자기발전, 성숙을 지향하는
긍정적 성격의 자기애를 강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幸福者』의 人間愛

『幸福者』는 1919년(대정 8년) 1월부터 「白樺」에 「自分の師」라는 題目
으로 연재되었으며 4월부터 『幸福者』라고 수정되어 게재되었다. 實篤는
문학의 길을 걸겠다고 결심한 것과 동시에 「新しき村」 건설을 꿈꾸어 왔
는데 1919년은 그 꿈을 성취하고 희망과 포부에 가슴 벅찬 한 해였다. 「新
しき村」를 착수하여 그 자신도 건축에 참여하면서 자재를 메고 다니며
집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오와 다짐도 있었을 것인데 『幸福者』는 「新
しき村」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幸福者』는 「新しき村」에 대한 구상과 꿈이 담긴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마을에 대한 형식과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人間關係에서 구
비해야 될 태도와 염두 해 두지 않으면 안될 사항들을 기록했다. 『幸福
者』 집필시기는 實篤가 가장 의욕적으로 창작활동을 한 시기이며 「新し
き村」 건설이라는 실천운동과 맞물려 實篤의 전 인생 중 가장 의욕적인 시
기였다고 본다. 그래서 『幸福者』에는 實篤의 마음속에 있던 주옥같은 진
리의 말들이 설교처럼 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實篤는 이 시기에 『友情』의 작품을 出版했는데 『幸福者』와 더불어 매우
종교적 색채가 짙은 작품이다. 神이라던가 「祈り」 등의 어휘가 자주 나오
는데 『幸福者』에서는 더욱 심도 있게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 예수, 석
가, 공자, 등을 등장시켜 보다 노골적으로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인 면을
강조한다. 다음은 實篤가 『幸福者』를 쓰는 의도를 밝힌 글이다.

이 소설을 써서 형제에게 기쁨을 준다면 기쁘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며 글을 썼다.

この小説をかき上げたことが、兄弟によろこびを与えることが出来ればよろこびだ。自分はそれをのぞみつつ筆をとった。58)

나는 여기에 가능한 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쓰려고 했다. 이는 환경에 의하여 지배받지 않고 영혼에 의하여 지배받는 인간을 말한다. 타인에게 지배받지 않고 신에게 지배받는 인간이다.

自分はここに出来るだけ本當の幸福者を書こうとした。それは境遇によって支配されず、心霊によって支配される人間だ。他人によって支配されず、神によって支配される人間だ。59)

위 글은 『幸福者』의 광고문으로 당시의 잡지 「新しき村」 10월호에 實篤 자신이 밝힌 글로서 『幸福者』라는 작품은 인간애를 표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實篤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굽히지 않고 내세우는 성격인데 『幸福者』에서도 作家의 주관적 사상을 유감없이 표출하고 있다. 實篤는 「自分の立場」「個性に就いての雜感」의 가운데서

나의 입장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일을 그대로 남에게 전달하는 데에 있다.

「自分の立場は自分の思うことを感じることをそのまま他人につたへることにあるのだ」60)

實篤는 당시의 문단에도 새로운 사상을 주입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인간이

58) 中川孝, 武者小路實篤, 皆美社, p.49

59) 앞의 책, p.49

60) 白樺派文學, 武者小路實篤研究, 有精堂, 1982, p.211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아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實篤의 사상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근원이 된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白樺派 문학은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밝고 생기 있는 성격이었다. 白樺派 대표하는 實篤는 그의 개성의 주장이 문학의 동기가 되었다. 그의 개성을 이해하면 實篤의 文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의 개성은 작가로서 문학적인 평가를 초월하고 글을 썼다는 것이다. 오로지 현세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보다 차원 높은 정신적 세계의 가치관의 추구를 위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그의 개성은 자연의 의지를 따른다는 평범한 원리이다. 온 우주에 충만한 신의 존재에 거부하지 않고 정직과 최선으로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유익하도록 하고 상호간에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며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낙천성을 엿 볼 수 있다. 『幸福者』에는 이러한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작품의 인간애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하여 實篤는 사랑을 제시하고자 했던 점을 알 수 있는데 『幸福者』에서는 神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경멸받거나 천대받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며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적 차원에 근거한 입장에서 인간애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나와 너」로 대표할 수 있는 인간간의 사랑과 두 번째 神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초극적」 사랑으로 편의상 구분 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나와 너」의 사랑

『幸福者』는 제자가 스승(師)의 삶을 기록하는 형태의 작품으로서 이 작품의 全篇에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숭배의 마음이 넘치고 있다. 여기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인물로 조형되어 있는데 스승은 實篤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작가와 흡사하다.

본문 속에서 스승은 여러 갈등적 상황 속에서도 도덕성을 우위에 두는 일관된 자세와 신앙의 세계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新しき村」에서 實篤의 역할과 회원들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을 게재했다고 볼 수 있다.

마르틴부버⁶¹⁾는 참되고 충만한 현재는 만남의 관계가 존재하는 한에서만 존재한다고 했다. 오직 「너」가 현전하게 됨으로써만 현재는 생성된다. 「너」는 만남을 통하여 충만해지고 끊임없이 작용을 계속한다. 라고 하며 관계형성은 세 가지로 분리하는데 첫째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둘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 셋째는 정신적 존재들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세 영역에 「너」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물(it)와 구별하기 위한 대명사이다. 본고에서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 말하는 「너」를 말하고자한다. 「너」가 사람일 경우 사랑이란 책임을 동반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實篤는 이런 만남을 통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밝히고 있다. 『幸福者』에서 스승은 「너」라는 의미의 여러 대상을 만난다. 대상을 불문하고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생각한다. 여기서 「나와 너」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實篤는 진리의 말로써 공감을 느끼게 하고 또 그대로 적용하여 「新しき村」에 보다 유익한 정신적 자료로 삼고 싶었던 것이다. 實篤는 만나는 대상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하는데 이것은 實篤가 그런 인간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던 이유에서 비롯되었던 같다. 實篤는 성장과정과 人間關係에서도 다른 사람과 달리 좋은 환경이었다. 우선 兩親과의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實篤의 내면세계를 평화롭고 안정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61) 【Buber,Martin】 (1878—1963):오스트리아 빈 출생으로경건주의및동양철학을연구하고헤브라이어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함, 「1923-1933」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비교 종교학을 강의, 「1938-1951」 예루살렘의 헤브라이 대학에서 사회철학 교수로 있었음

이 아이를 잘 키워줄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아이는 세계에 단 하나의 개성적인 인간이 될텐데

「この子をよく育ててくれる人があったらな!そうしたら、この子は世界に一人と云う人間になるのだが」⁶²⁾

實篤의 부친은 임종시 위의 말을 남겼다. 아버지가 마지막 남긴 말은 實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實篤의 일생에 큰 격려가 되었고 개성적인 인간으로 형성되는데 도전과 자극이 되었다.

『幸福者』에서 師는 산행에 노승을 만났다. 老僧은 스승에게

당신은 훌륭한 인간이 될 것이다. 하늘의 가호가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 「あなたは偉い人間になるだろう。天の加護があなたにあるだろう。」⁶³⁾

라고 말을 하는데 스승은 여기에서 아버지의 환영 같은 것을 느낀다. 實篤는 2才때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긴 말은 實篤의 가슴에 오래도록 새겨졌음을 알 수 있다.

實篤는 낙천적이고 온화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청년기에 훌륭한 聖人들의 전기 및 작품을 읽는 등 따뜻한 부모의 사랑과 친구들의 교제 등으로 얻어진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인간관계가 志賀直哉로서 이 만남은 實篤가 중학 6학년생 때 그의 학년으로 만나 친숙한 사이가 되는 데 이 만남은 實篤의 운명을 白樺의 활동을 하게 하였고 동시에 문학의 길을 걷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志賀直哉와의 만남은 實篤에게 문학뿐만 아니라 깊은 인간애를 체험하게 했으며 우정 속에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충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인간관계로는 혈육으로서의 實篤의 형을 예로 들 수

62) 福田清人, 松本武夫, 『武者小路實篤篇』, 清水書院, 1990, p.15

63) 武者小路實篤, 『幸福者』, 『武者小路實篤集』, 新潮社, 1995년, p.97

있다. 實篤의 처녀작 「荒野」를 출판할 때 출판비용을 조달했는가하면 대학을 중퇴하고 문학의 길을 걷고자 할 때도 큰 힘이 되었다.

그후 결혼문제, 「新しき村」등 후원자로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위안이 되었다. 이렇듯 實篤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마찰과 갈등 없이 청년기를 지내게 되어 정신적 투명성을 소유했는지도 모른다. 거짓과 위선 허영, 체면, 걸치레와는 동떨어져 있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순수함을 알 수 있다. 『幸福者』에서 스승이 「만남」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인간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인간애를 형성하여 그 안에서 행복을 만끽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자기와 접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自己に接する人に喜びと感謝と幸福を送るだけ送るようになければいけません⁶⁴⁾



實篤는 자기만이 사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살아갈 수 있는 자는 행복하다.

사랑하는 자는 행복하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자는 행복하다.

生きてゆけるものは仕合せだ。

愛するものは仕合せだ。

第一愛するものを持っているものは仕合せだ。⁶⁵⁾

64) 앞의 책, p.90

65) 앞의 책, p.142

위 글은 『幸福者』에서 스승이 설교하는 내용인데 實篤가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實篤는 「眞」, 「愛」, 「美」의 사상을 고집스럽게 강조한다. 그렇게 해서 진심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유토피 아적인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자 했다.

스승이 있어 자신의 일생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시골구석에서 자신이 스승과 같은 분을 만나 볼 수 있었던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

師があつて自分の一生があるのだ。こんな片田舎で自分が師のような方にお目にかかれたことをどんなに自分は幸福に思っているか知れない。66)

제자는 스승과의 만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인생의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글이다. 또한 스승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것이 무형의 것이던지 유형의 것이던지 자신에게 유익함이 되었다는 뜻이다. 1:1의 관계에서 이토록 他人에게 행복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實篤의 사상은 「살리다」(いかす)의 의미에 초점을 둔다.

人間關係에서도 「살리다」(いかす)의 思想이 적용되는데 이것은 사랑이라는 재료가 필요 하다고 본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됩니까

「この世の中はどしたら幸福になるのか」라는 질문에

불행한 씨를 너무 뿌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不幸な種をまきすぎている?」「そうです。」67)라고 답한다.

66) 앞의 책, p.83

67) 앞의 책, p.89

위 글은 성서의 인용문이다.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의 말인가. 즉 좋은 말, 좋은 행동 등등이라 본다. 좋은 씨에는 他人에게 불쾌감이나 무시하는 태도, 무례함이 아니다. 사람의 언어, 행동, 감사의 것이라 본다. 人間關係에서도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좋은 관계를 이루며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實篤는 끝없이 「善」을 추구한다. 인간으로서 참다운 가치추구와 진리에 접근함으로 神이 인간에게 부여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고자했다. 이러한 한결같은 자세는 그의 문학의 특성이라 볼 수 있다. 단순하고 평이한 묘사를 함으로 實篤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했으며 이에 따라 서경적 묘사, 역사적인 작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實篤는 인간 내면의 추함과 복잡한 갈등구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언급하지 않는데 이것은 작품 소재의 한계를 초래하고 다양한 독자들과 공통점을 소유하기 힘들다고도 볼 수 있다. 작품전반에 걸쳐 신앙세계를 드러내 보이는데 영적인 세계와 무관하거나 혹은 자신의 삶과 동질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實篤가 그토록 강조하고 싶은 설교적 내용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세계의 현실은 악과 비리가 여과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은 그런 면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實篤의 작품은 인간의 다양한 환경, 다양한 경험을 묘사하는데는 그 폭이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한 도덕성중심의 행동과 사고는 인간의 가치를 다시 재인식시키고 삶을 유연하게 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게 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재점검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경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순진하고 아첨하는 듯한 곳은 볼 수 없었다. 자신은 점점 스승과 만나는 것이 좋아졌다. 그리고 스승이 때때로 의식하지 않고 하는 말에도 동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しかし無邪気で、媚びると云うような所は見えなかった。自分は段々師とおちあうのが好きになった。そして師が時々意識もせずに云う言葉に同感を感じないではいられない時があった。68)

이렇듯 스승과의 만남이 행복했다고 하는 까닭은 스승의 진리의 말에 대한 공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스승의 말은 타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다. 實篤는 진리를 말하고 싶은 욕구를 그 수단으로서 대화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더욱 확실히 답을 구하려 했다.

타인의 불행을 동정하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말은 우리들을 눈물이 나도록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

他人の不幸を同情し、それを助ける話は、我々を涙ぐませる程ありがたい気を起こさせる。69)

위 글에서 참다운 인격적인 관계란 양질의 대화를 요구함을 알 수 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는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결합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사랑함과 사랑 받음이, 인식됨과 인식함이 존재한다. 다음은 대화의 위력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다.

어느 날 달밤에 한 젊은이를 만나는데 스쳐 지나가는 젊은이였지만 스승은 곧 그 젊은이가 자살하려는 걸 직감했다. 이 젊은이는 결핵환자였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모든 의욕을 상실한 상태였다. 스승과의 대화도 꺼리고 죽음의 결과는 동일한 것이므로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데 스승은 대화로서 용기와 위로를 준다. 한 젊은이가 자신의 생을 포기하지 않게 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였던 것이다. 스승은 他人에게 열려진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웃에게 무심함이 아닌 사랑과 배려는

68) 앞의 책, p.105

69) 武者小路實篤, 「인생론, 愛について」 新潮社, 1969, p.25

강박한 마음의 껍질을 벗게 하고 좌절과 상처를 치료한다. 『幸福者』에서는 타인을 사랑하고 자기 희생적인 면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實篤는 작품을 통하여 수준 높은 사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의 고귀함을 강조한 實篤는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이타주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메테르링크의 사상보다는 인간애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幸福者』에서는 「自己」를 소중히 하고 인간의 「發展」, 「成長」, 「成熟」을 강조한 實篤이지만 상당부분 타인의 대한 배려와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들이 식사를 나르도록 되고 나서는 스승은 자신의 토지를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말았다.

自分達が飯を運ぶようになってからは師は自分の土地を近所の一番貧しいもの
与えてしまわれた。70)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중의 하나이나 스승은 소중한 것을 나눔으로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실제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싫은 일은 타인에게 시키지 않고 자신과 타인을 가장 깊이 연결하여 타인의 마음을 귀히 여기며 만날 수 있도록 하고 타인과 자신을 불행케 사지 않고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自分のいやなことは他人にさせず、そして自地の幸福を最も深い處でむすびつけて、そして他人と心を貴くしてつきあえるようにし、他人自分を不幸にせず、自分を賤しくせずに出來たら他人を幸福にすることだ。71)

70) 武者小路實篤, 『幸福者』, 「武者小路實篤集」, 新潮社, 1995년, p.85

71) 앞의 책, p.122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實篤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성별과 신분에 따라 그 대우를 달리한 明治시대와 구분되는 사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明治시대는 격동의 시대로서 국가적 차원의 소용돌이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쇄국정책에서 국가를 개방하여 새로운 이국문화를 수용해야하는 문제와 낙후되었던 개인과 국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따라 문학의 성격을 「修養」이라는 상징적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大正期는 서양으로부터 이입된 근대문학이 일본에 뿌리내려 독특한 열매를 맺게된 성숙의 시대라고 말 할 수 있다. 明治의 시대 건설 당시를 경험했던 1대째의 지식인은 鷗外, 漱石, 二葉亭, 鑑三等은 동양과 서양, 후진성과 근대성 등의 대립과 마찰을 경험하여 긴장감에서 분출한 여러 가지의 고민과 분열, 왜곡과 이지러짐이 엿보이나 2대째는 국가나 민족의 절실한 문제없이 개인 내부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여기서 白樺派와 漱石門下生의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학의 성격을 한마디로 「教養」이라는 어휘로 상징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젊은 나이의 작가들로서 풍부한 독서와 문학과 인생론에 관계된 東西古今을 접했고 個性의 신장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⁷²⁾ 『幸福者』에 나타나고 있는 스승의 태도에서도 「教養」을 느낄 수 있고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시키는 인간 내부의 성찰에 그 초점이 있다. 또한 『幸福者』는 설교적, 명상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상과 해답의 연속이다. 진실을 추구하고 인간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72) 紅野敏郎等, 有斐閣選書, 「大正の文學」, 有斐閣, 1980년, pp.108-109

어느 날 스승의 집에 하룻밤 묵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심한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스승은 허락한다. 자신의 식기에 식사를 하게 하고 잠자리도 자신의 이불을 사용하게 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인간에게 충분히 갈등의 요소를 느끼게 한다. 인간은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승은 타인에게 냉정하지 않았고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장 선한 행위를 좇음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

스승은 여성의 유혹 앞에서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우선 생각한다.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을 때에도 성적유혹에 빠지지 않고 보다 높은 가치관에 의한 행동을 취할 수 있었는데 다음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나는 그 여자와는 더 이상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했다.

俺はその女とはもう靈の話は出来ないと思った。⁷³⁾

스승은 여성 앞에서 매우 도덕적 자세를 취하는데 그러한 동기는 인간세계만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한 차원 높은 靈의 세계의 소중함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덕성에 근거한 태도로서 상대방의 세계에 행복감을 건네고자한다. 여성의 연약성을 이용하여 함부로 하는 태도는 전혀 찾아 볼 수 가 없다. 여성의 운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여성을 차별화 하지 않고 남녀 동등한 범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實篤는 스승을 통하여 인간은 갈등, 죄와 무관한 聖人이 아니지만 그런 본능적 요구에 응하지 않고 윤리와 도덕 나아가 신앙의 차원에서 소유할 수 있는 인내와 절제,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도 아직까지 순간적으로 인생의 무의미를 느끼고 쓸쓸함을 느끼는 일이 있다. 그런 순간은 자신이 빛나간 길에 서 있을 때이다. 적어

73) 앞의 책, p.88

도 자신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이다.

自分も今だに瞬間的に生の無意義を感じ生れたことの淋さを感じることもある。瞬間は自分の邪路に入っている時だ。小なくも自分の精神が本当には生きていない時だ。74)

實篤는 항상 바른길을 택하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려고 한다. 그러기에 實篤의 글에서 허무감이라던가 인생무상을 느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닐까 實篤는 육체적인 요소보다 정신적 활동을 무척 강조한다. 육체적인 노동을 중시하고 있는 모습은 「新しき村」의 창설 동기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實篤는 무엇보다 인간내면의 정화, 청순, 순수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한다.

자신의 일생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조용히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기심이랑 작은 근성으로 생기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혼란시키고 천하게 하고 자신의 세계를 천하게 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살고있는 세계를 청결하게 하고 평화의 기쁨을 마음 깊은 곳에서 맛 볼 수 있다.

自分の一生を平和にするためには心を静かにすることが必要だ。～利己心や小さい根性から生まれるのは皆自分の心の平和を乱し、心をいやしくし、自分の生きている世界をいやしくする。心を清くもつものは自分の生きている世界を清くし、平和のよろこびを心の底ら味わうことが出来る。75)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은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배제하고 살아가도록 한다. 탐욕과 미움 등은 우리 생활에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없음을 시사

74) 앞의 책, p.99

75) 앞의 책, p.122

한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만이 자신과 이웃에게 평화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기심과 자기만족을 위하여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않고 타인에게 섬세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타적 사랑을 실천한다. 『幸福者』에서 實篤는 자신의 욕망과 이기를 버리고 神을 염두에 둔 경건한 생활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幸福者』는 「新しき村」의 경전처럼 느껴지는데 實篤는 자신 속에 내재한 영적인 감흥과 진리를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음을 느낄 수 있다.

2) 「초극적」 사랑

「新しき村」에서는 예수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건을 많이 볼 수 있다.

십자가형이라는 치욕적인 형을 받으면서도 예수는 불평하지 않았다. 무리들의 오해와 무례함에 항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도 인류를 사랑한다.

『幸福者』에서도 스승은 예수그리스도의 초극적인 사랑에 매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자 예수를 생각했던 것 같다.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리들 앞에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초월적 인격체인데 스승은 그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芥川龍之介의 경우에는 서양문화와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서 속의 예수를 알고 있었지만 신앙으로서의 예수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것은 실증주의적 관점으로 인간예수를 바라보는 시대적 조류의 영향으로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우울하고 회의적 색채의 작품을 쓴 芥川龍之介는 결국 36세의 젊은 나이에 자살로서 그 삶을 마감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유년기부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부여받은 實篤는 인생을 보다 확신할 수 있었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한 연유로 實篤는 자신에게만 몰입하지

않고 보다 더 넓은 세계로 관심을 돌릴 수 있었고 다수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헌신적 자세를 갖는데 그것은 「新しき村」의 창설시기에 잘 나타나고 있다. 「新しき村」이 끌어 가는 데에도 있어서 모두갈채를 보내고 찬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實篤는 앞으로 닥쳐올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예수그리스도의 초극적 사랑을 항상 떠올린 것 같다.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인간이 인간처럼 살아가는 세상의 모델을 완성시키고 싶어했다고 가정해본다. 또한 「新しき村」의 구성원들에게 보다 차원 높은 사랑을 기대하고 싶었을 것이다. 「新しき村」은 회원들의 사고와 철학이 고매하지 않으면 도저히 수행하기 힘든 단체생활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實篤가 이상적 마을을 건설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생활은 그다지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체에서 무엇보다 필수 불가결한 것은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일 것이다. 이런 인간애가 없다면 존립하기 힘들며 결국 파국에 이른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성자 예수처럼 생명을 버리는 사랑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신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삶을 몸소 보여주려고 애썼던 것은 사실이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최상의 일이다.

愛しあえ、愛しあえ、それは最もいいことだ。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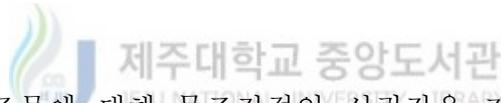
이렇듯 實篤는 인간공동체에 가장 기본 되는 원리는 사랑이라고 강조한다. 實篤가 『幸福者』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 할 수 있다. 實篤는 사랑을 이런 경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이것은 實篤가 얼마나 종교적 인간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깊은 신앙의 수준을 투영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과 죄와는 무관한 거의 신적인 모습을 그리면서 깊은 감동을

76) 앞의 책, p.154

느끼게 한다. 스승을 향한 무리들의 계략은 스승의 모든 삶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승의 반응은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완전한 사랑을 보이고 있다. 이것으로 實篤가 이 당시 깊은 신앙의 길에 서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 스승으로서 인기가 상승하자 이를 용납할 수 없는 무리들이 질투하여 미움의 화살을 보낸다. 스승을 궁지에 몰리게 하려는 계략으로 여성을 투입시켜 시험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스승은 신앙적 자세를 일관하여 나타내는데 청결하고 모범적 생활자세로서 그들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모습을 보인다.

누구라도 사랑할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誰だって愛すべき一面をもっているものだ。私はあの人を憎んではない。77)



스승은 신의 피조물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감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實篤의 사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實篤는 인간에 대한 긍정적 시야를 가졌다는 것이다. 實篤는 인간의 약점이나 미움이나 복수 등을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낙천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신뢰가 그 이유이다.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 인정하고 누구나 소중하고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나름대로의 신이 부여한 아름다움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스승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분이셨다.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

師は滅多に怒らない方だった。すべて許すだった78)

77) 앞의 책, p.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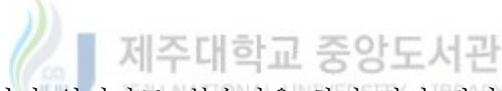
78) 앞의 책, p.85

스승의 집에 화재사건이 발생한다. 급기야 무리들은 스승에게 미움의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스승은 자신에게 미움을 갖고 질시하는 그들에게 용서라는 관대한 마음을 갖는다.

타인을 의심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他人を疑うようなことは云ってはいけない。79)

이렇게 타인을 함부로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주의 탓이라고 말한다. 스승은 오로지 정의, 정직의 길을 선택하고 타인의 의심이나 판단에 대해서는 무시하려고 노력한다. 그저 자신이 행해야 될 선한 길을 택한다. 그의 우주관 내지는 세계관에는 선에 대한 의지가 충만하여 있다. 묵묵히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들을 비난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감싸는 고양된 사랑의 극치를 이룬다.



스승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복수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師はどんなことが起っても、復讐だけはしないでくれと云った。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스승의 주변 일들이 기사화 되는데 여성과 함께 있었던 일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날조되어 있는 일이다. 당혹스런 이런 사태에서도 스승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태양은 어떠한 것이 와도 그것을 자신을 빛으로 바꾸는 재료로 만들 뿐이다.

太陽はどんなものが来ても、それを自分を光つす材料に化するばかりだ。81)

79) 앞의 책, p.150

80) 앞의 책, p.150

위 글을 통하여 實篤의 위대한 정신을 알 수 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스승은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자신을 한없이 미워하는 무리들에 대한 애정으로 나타난다. 무리들에게 초극적 사랑을 보임으로 인간의 경지를 초월한 참 사랑을 묘사했다.

여기서는 성자 예수의 깊은 사랑을 음미하며 「新しき村」에 이런 사상을 심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耶蘇』라는 작품을 집필했다는 것을 미루어보아 實篤는 예수의 사상에 심취되어있었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기독교는 일본에서 토착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549년 자비엘이 鹿兒島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한 것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 후 30년간 일본사회에 전해지나 神仏神仰과의 대립, 봉건적 군신윤리 등의 문제를 겪게되고 1587년 豊臣秀吉은 伴天連放逐을 내려 카톨릭 수도사들을 국외로 추방한다. 1597년에는 長崎西坂에서 26명의 기독교인이 처형된다. 그 후 계속적으로 1639년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개인의 소속 종교를 파악하려고 宗門改제도(종교개혁)를 채택한다. 그 후 쇄국령이 공포되었고 200년간 박해는 계속되었다. 1858년에 비로소 日米修好通商条約에 의하여 상호종교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선교사의 과견이 행해진다. 1889년에는 明治헌법이 발표되어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지만 天皇制사회에서 신앙을 우선으로 활동할 수 없었다. 일본의 기독교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탄압하였고 이런 여건으로 인하여 기독교를 개인이 수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처지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처지에서도 實篤는 예수의 선행과 설교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신앙의 열의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렇듯 기독교의 수용이 어려운 척박한 환경 탓인지 더 이상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만다. 그 후 작품은 이 시기에 나타냈던 신앙의 열정은 점차 엷어짐을 알 수 있다.

實篤는 스승의 태도를 통하여 시사하는 점은 무척 많다. 자신을 향하여 돌

81) 앞의 책, p.150

을 던지는 자 앞에서도 침묵하면서 인내하는 모습을 통하여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한다.

스승은 또한 결과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다. 자신이 견디는 아픔은 언젠가는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볼 것이라는 꿈을 갖는 것이다.

우리들은 스승의 마음이, 욕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自分達は師の心が、悪口する人達の心とはまるでちがう世界に生きていることを感じないわけにはゆかなかった。」⁸²⁾

3. 현실적 적용으로서의 「新しき村」

1. 創設동기



「新しき村」는 實篤가 꿈꾸어왔던 理想郷으로 이를 통하여 강렬한 「人間愛」를 엿볼 수 있다. 實篤는 문학의 길을 걷게 됨과 동시에 「新しき村」를 생각했었고 문학과 마을은 밀접한 관계로 떼레야 떼 수 없는 쌍둥이(双生児)라고 설명한다. 實篤는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현실에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관념으로 그치지 않고 「新しき村」라는 구체적 형태를 통하여 보여주었다. 문학의 정적인 성격과 「新しき村」의 동적 활동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實篤는 자신의 세계를 드러내었는데 「新しき村」의 창설동기를 大津山国夫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적인 동기로 제도와 금전의 속박으로 해방하여 합리적 공생사회를 동경하여 사회개조로 인한 민중구제, 특권계급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외적인 동기로는 러시아 혁명을 비롯하여 사회의 제반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82) 앞의 책, p.152

實篤는 그 당시 러시아 혁명을 우려하고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다. 왜냐하면 實篤는 東京帝国大学文科社会学科에 학생이었던 것을 미루어보아 사회의 동태에 무감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기로 「新しき村」라는 마을을 창설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이 마을은 현존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없이는 이러한 마을을 실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實篤 자신이 「新しき村」에서 박애적인 사랑을 가졌던 톨스토이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다.

왜 나는 「新しき村」의 생활을 시작했나

그것은 톨스토이에 의해서 뿌려진 씨가 다 마르지 않았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なぜ自分は新しき村の生活を始めたか。

それはトルストイによって播かれた種が、枯れ切っていなかったのが一番、主

な理かと思う。83)



톨스토이는 기독교로 복귀한 후 문학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타락한 기독교를 배제하고 근조, 채식, 금주, 금연을 표방하고 간소한 생활의 영위와 악에 대한 무저항주의와 자기완성을 통해 전세계 복지에 기여하려고 노력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희생적인 사랑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實篤는 「新しき村」속에 톨스토이의 사상을 조금이나마 실현시키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實篤는 「新しき村」의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83) 武者小路實篤, 「人間らしく生きるために <新しき村について>」, 財團法人新しき村, 1994, p.24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태어나서 좋았다. 인간을 사랑하게 되었다. 진심으로 인간을 사랑하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人間として生きているかぎり人間を愛しているのです。人間に生まれてよかった、人間を愛することが出来た。真心から人間を愛することが出来た。私はそういう人間にな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のです。⁸⁴⁾

위 글에서 實篤는 인간에게 사랑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1918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이며 일본은 종전을 계기로 전쟁이랑 평화, 인도라는 문제가 의식 가운데의 전면에 떠오르게 되는데 實篤는 「新しき村」가 어떠한 혁명적 성격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닌 이렇게 인간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물론 자본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그들은 제3의 사람들이다. 인간주의자인 것이다. 세계동포주의자이다.

「彼等は資本主義では勿論ないが、社会主義でもない。彼達は第三のものである。人間主義者である。世界同胞主義者である。」⁸⁵⁾

1918년 宮崎県日向에 「新しき村」가 탄생하였을 때 大正中期에 청년시절을 보낸 사람이 아니면 그 당시 「新しき村」운동이 얼마나 크게 여론을 뒤흔들었는지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데 「人間の本来의 생명」에 눈을 뜨고 「自我를 살린다」라는 사상을 토대로 한 「新しき村」는 인류 전체가 성장하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사회를 이루고자하였다.

84) 武者小路實篤, 「人間らしく生きるために〈新しき村について〉」, 財團法人新しき村(1994), p.261

85) 福田清人, 松本武夫, 『武者小路實篤篇』, 清水書院, 1990, p.104

인간을 미워하며 성공하는 것보다도 人間을 사랑하며 실패하는 편이 승리자이다. 인간을 더욱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人間に愛憎をつかして成功するより、人間を愛して失敗する方が勝者だ。失敗しても人間を益々愛することが出来ればそれは失敗ではない。」⁸⁶⁾

實篤는 「新しき村」의 착수는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人間을 사랑하는 人間愛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주의, 인간신앙으로 출발해서 모두가 형제, 자매처럼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자기의 의지, 인류의 의지를 「新しき村」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다.

實篤는 사회개혁가로 평가받기보다는 사상가 혹은 종교가로서 평가되길 바랐는데 「新しき村」는 사회를 개혁하는 의미로서보다는 人間으로서 가치를 발휘하면서 사는 사회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新しき村」를 창설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한 그의 동지로서는 木村, 松本, 竹村가 최초의 사람이었는데 정기적 모임을 월 1회 가졌다.

회를 거듭할수록 사람이 많아졌고 동경에 한 채의 집을 빌리는데 「新しき村」의 본부가 되었다. 大正7년 7월부터 「新しき村」라는 월간잡지를 내고 9월부터 「新しき村の生活」을 간행하면서 토지를 구입하려는 시도를 한다.

회원 구성으로는 제1회원과 제2회원으로 구성하며 제1회원은 제한적이며 제2회원은 어느 누구도 가능케 했다. 大正7년(1918) 11월 14일 19명의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九州宮崎県児湯君木城村大字石河内1333에 건설을 착수했다.

86) 武田寅雄, 『백화』 群象(一), 1971, p.12

「新しき村」에 관한 이야기는 「新しき村の説明」, 「新しき村の目的」(1920년 3월), 「新しき村にて(對話)」(1920년 9월), 「新しき村の信仰」(1920년 9월), 「新しき村の将来」(1920년 9월), 「理想社会」(1923년 7월)등을 발표했다.

創設기에 實篤의 文学活動은 눈부실 정도의 활약을 보였다. 1919년부터 1923년까지에 그의 단행본은 30권을 넘고 잡지의 기고는 100편에 가까웠다.

1919년에 『友情』, 『幸福者』, 『耶穌』를 시작으로 1921년에는 『或る男』와 『第3 隠者の運命』, 1922년에는 『人間万歳』 등의 대표적 작품을 출품했다.

「新しき村」는 같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과 武者小路實篤의 사상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농장 작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정한 시간은 노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성을 살리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한다.

다만 자신이 알고있는 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켜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있을 동안, 인간을 위하여 일하고, 가능하다면 인간으로 태어난 만큼의 일을 하고, 이 주어진 생명을 가능한 한 소중히 하고싶다고 생각할 뿐이다.

「ただ自分にわかっていることは自分がこの世に人間として生かされていることだ。そして人間として生きている間、人間の爲にはたらいて、出来たら人間に生れただけのことをして、この與えられた生命を出来るだけ 貴くついせしたいと思うだけだ。」⁸⁷⁾

위 글은 『幸福者』에서 인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新しき村」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87) 武者小路實篤, 「幸福者」, 「武者小路實篤集」, 新潮社, 1995년, p.112

「新しき村의 정신」

1. 전 세계의 인간이 천명을 완수하고 각 개인의 내부에 있는 자아를 완전히 성장시키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2. 자기를 살리기 위해 타인의 자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자신을 올바르게 키워나가도록 자기의 쾌락, 행복, 자유를 위해 타인의 천명과 정당한 요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전 세계의 인간이 우리들과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동일한 생활방식을 취함으로써 전 세계의 인간이 동일한 의무를 완수하고 자유를 즐기며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천명(개성을 포함한)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⁸⁸⁾ 實篤는 인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있으며 자유롭게 개성을 살리며 인간 본연의 의무(노동)를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新しき村」의 창설동기와 마을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문학가의 고매한 품격에 만족하지 않고 몸소 새로운 마을을 만들면서까지 실천한 이유는 「사랑」이라는 뿌리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다.

2. 현실적 限界

「新しき村」를 창설하기 위해서 부지로 채택된 곳은 U자형으로 그릴 수 있고 小丸川에 둘러싸인 고립된 토지였는데 후방에는 험준한 산을 배경으로 했다.

사람이 거주하는 石河内に 가는 데에는 배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비가 많이 올 때 이 지방은 때때로 물이 넘쳤으며 식량이 부족했다. 마을로 돌아올 때에도 배가 없을 경우 모두 굶주리는 상황이었다.

日向을 「村」로 결정한 이유는 일상생활의 편리한 점을 고려한 것이 아

88) 「新しき村」에서는 1918년 9월에 회칙을 정하고 그것을 잡지 『新しき村』 10월호에 발표하였다. 1920년 12월에 이 회칙을 개정해서 1921년 1월호의 권두에 발표, 그 때, 새로이 「新しき村의精神」을 성문화하였다.

나라 「村」를 좀처럼 구할 수 없었던 토지매입의 까다로운 문제가 그 원인이었다.

더욱이 농업을 목적으로 한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방면에 기초지식이 부족했고 더러는 농가 출신도 있기는 하였지만 많은 회원은 밭의 이랑을 한 열 썩 정리하는 작업에 둔하고 낫과 괭이의 작업에도 서툴렀다.

또한 농업은 파종의 시기와 수확의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을 요하며 이를 토대로 실행해야 하는데 「新しき村」의 정신적 이념에 근거하여 석가, 그리스도의 탄생일, 톨스토이의 생일, 마을의 창립기념일, 로맹의 탄생일을 축제일로 하는 등 휴일이 너무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다소 몽상적인 데가 있다.

그리고 실생활 면에 있어서도 젊은 남녀가 사람들과 격리된 채 공동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 외부로부터 적지 않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커다란 포부를 안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현실적 장애가 만만치 않았다. 「新しき村」에 대해서 비관적인 예견을 보낸 사람은 社会主義者 山川均과 堺枯川는

이론과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주의는 몽상주의의 끝이고, 河上肇은 의도는 좋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압박을 받고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理論と方法を欠いた理想主義は夢想主義に終といい、河上肇は意図はいいが、経済的には資本主義の圧迫を受けて失敗すると予言した。」

89)

有島武郎조차 호의 있는 비관론을 보냈다.

89) 武者小路實篤, 「新潮日本文學 アルバマ」, 新潮社, 1984, p.45

게다가 사회의 흐름조차 1918년경에는 同盟罷業과 小作民의 항거가 빈발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科學的社會主義의 방향으로 이행되어 인도주의의 매력은 옅어져 갔다.

마을의 형제자매의 생활은 實篤를 지원하는 문단, 화단의 사람들과 촌외 회원의 원조에 의해서 유지되었는데 그것으로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채우고 복잡한 인간의 내면의 요구를 듣고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아진다. 人間生活은 도약과 발전 진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리적, 물리적으로 제약된 환경이 實篤의 이상적 마을을 성공시키기에는 무리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애초부터 설계와 시도에 있어서 치밀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했다고 보아진다.

1926년 1월 두 딸의 아버지가 된 實篤는 자녀의 교육과 병상에 계신 어머니로 인해 東京에 거주를 옮기고 촌외 활동을 한다.

마을(村)의 경제상의 지원을 위해 자신의 원고료 및 書畵의 사례금도 모두 마을(村)의 자립과 시설을 위해 투자했는데 그 액수는 상상치도 못하는 금액이었다고 한다.

얼마나 實篤가 「新しき村」에 애착을 갖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위대한 理想과 현실은 조화되기 어려웠고 마을은 매순간순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알게된다. 日向의 「新しき村」는 수력발전소건설로 인해 토지의 일부를 잃게 되어 1939년(昭和14년)琦玉県人間郡毛呂山町葛貫에 「東の新しき村」를 건설한다.

實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新しき村」⁹⁰⁾는 현존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實篤의 기념관을 세워 그의 정신과 예술을 기리고 있는 것을 보아 이런 생활에 향수를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90) 4명의 촌내 생활자가 있으며 주소는九州宮崎県児湯君木城町大字石河地13333번지 (2001,4월)이다. (Tel:0938-39-1139)

Ⅲ. 結 論

본고는 지금까지 武者小路實篤의 초기작품 『友情』 『幸福者』을 통하여 實篤의 人間愛를 살펴보았다. 實篤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인간예찬론자이다. 무엇보다 인간을 무한하게 성장하는 가능태로서 바라보고 인간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표현하려고 부단히 애써왔다. 그 저면에는 휴머니즘 정신이 깔려있는데 이것을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고찰해왔다.

인간에게 만약 사랑을 통하여 진리를 접하는 기쁨이 없었다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우며 가엾은 일이다.

人間にもし愛を通した真理にふれるよろこびがなかったら、人間に生れたと云うことは、滑稽であり気の毒なことだ。91)

實篤는 인간에게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톨스토이의 영향을 시사하고 있는데 實篤는 기독교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핵심적 교리까지는 접근하지는 못했으며 이웃사랑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實篤는 인간의 실존은 반드시 사랑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인간 내면의 가치를 존중하고 내면의 요구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른 작가들과의 상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른 작가들은 문학적 가치를 소중히 하여 기교와 표현에 보다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나 實篤는 인간자체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新しき村」를 창설할 즈음은 가장 강렬한 인간애를 표현했다. 그런 이유로 이 시기의 작품 『友情』, 『幸福者』, 「新しき村」를 통한 인간애를 살펴보았다. 『友情』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친구를 배려하는 大宮를 통하여 따뜻한 우정을 볼 수 있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91) 武者小路實篤, 「幸福者」, 「武者小路實篤集」, 新潮社, 1995년, p.136

「버림」이라는 헌신의 행위로 표현되었다. 이기적 자세는 사랑의 완성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포기이고 아픈 것이다. 이런 大宮의 성숙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杉子は 이들의 우정을 결코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었다.

實篤는 大宮의 분신이 되어 참 사랑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두번째로 異姓간의 사랑을 통한 인간애를 살펴보았다. 野島와 杉子の 사랑의 관계, 大宮와 杉子の 관계를 살펴보았다. 野島는 杉子を 사랑함에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일방적 태도로 진행시키지만 大宮는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상황을 배려했으며 냉철한 이성으로 사랑을 생각한다. 이런 면에 杉子は 더욱 매력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이성간의 사랑을 전개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애는 野島의 사랑의 실패를 통하여 인생에 사랑만이 유일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며 인간은 사랑보다 더 고매한 목표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적인 암시를 한다. 野島를 통해서 實篤는 인간 그 자체의 소중한 가치를 표현하고자했다.

세 번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기애를 등장인물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實篤는 톨스토이에서 벗어나 메테를링크를 접하고 「自己」의 성장, 성숙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野島는 부단히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꿈꾸는 인물로서 杉子와 결혼함으로써 자아가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인물로서 표현된다. 杉子와의 사랑에 과정이 왔을 때에도 역경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재기하는 인물로서 설정됨으로서 자기애가 있는 인물만이 역경을 헤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 杉子 역시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자세로 자기애를 표현하였다. 實篤가 표현한 자기애는 긍정적인 자세의 자기애로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정(大正)기의 자아 중심주의의 대표작가로서 손색없는 그의 역량을 드러내었다고 본다.

『幸福者』에서는 『友情』에서보다 밀도 높은 인간애가 표출되어있는데 그것은 대상을 불문하고 참사랑을 나누는 형태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인간

이기에 완전한 사랑이 되지는 않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을 미워하며 질시하는 무리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는 고양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초극적 사랑 드러내었다. 實篤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최상의 수준으로 도덕성, 윤리의식을 나타내고자 했다. 또한 문필로서만 그 사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서 현실에 적용한 「新しき村」를 통하여 단지 이론가만이 아닌 행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줌으로서 實篤의 지행합일적인 면모가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텍스트】

武者小路實篤, 「武者小路實篤集」, 新潮社, 1995

現代日本文學大系 33, 「武者小路實篤集」, 筑摩書房, 1970

I. 韓國文獻

【단행본】

郭福祿의 4인, 노벨상문학대전집17, 고려출판사, 1979

김정혜, 일본 근대소설입문, 부산 외국어 대학교 출판부, 1998

박문재 역, 마르틴부버, 「나와 너」, 도서출판 인간사, 1992

朴炯圭 역, 톨스토이, 톨스토이 인생론, 평범사, 1983

장영태역, M.마젠그리제바하, 文學研究의 方法論, 弘盛社, 1983

최재철, 일본 문학의 이해, 민음사, 1996

【論文】

김유석, “백화과의 문학연구 -무자소로실독의 「진리선생」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신연섭, “有島武郎와 武者小路實篤의 詩意識에 대하여” 韓國
일본학회, 1992

왕태웅, “武者小路實篤文學小考. - 『友情』의 主要登場人物들의
自我를 中心으로-”

_____, “武者小路實篤小論 - 「新しき村」를 중심으로-”

_____, “武者小路實篤の初期作品の一考察”,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1984

우성아, “「或る女」における女性像 - 「本能」を中心に-”,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6

한혜숙, “武者小路實篤의 인도주의 사상과 「新しき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2. 日本文獻

【단행본】

武者小路實篤, 「人生論, 愛について」, 新潮社, 1969

武者小路實篤, 「新潮日本文學 アルバム」, 新潮社, 1984

福田清人, 松本武夫, 「武者小路實篤: 人と作品」, 清水書院, 1976

日本文學研究資料刊行會,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白樺派文學」, 有精堂, 1982년

紅野敏郎等, 有斐閣選書, 「大正の文學」, 有斐閣, 1980

中村光夫, 「日本の 近代小説」, 岩波新書, 1989

聖書, 日本聖書協會, 1990

臼牛吉見, 「大正文學史」, 筑摩書房, 1982

江口朴郎, 「日本の歴史」, 小學館, 1982

三谷榮一, 日本文學史事典, 有精堂, 1979

下中弘, 日本史事典, 平凡社, 1991

河出孝雄, 文藝, 河出書房, 1955

中川孝, 武者小路實篤, 皆美社, 1994

金子洋文, 生ける武者小路實篤, 日本圖書センター, 1993
本多秋五外4人, 「現代日本文學大系79」, 筑摩書房, 1972
大津山國夫, 武者小路實篤研究, 明治書院, 1997
山崎誠, 有精堂選書 30, 「白樺派作家論」, 有斐閣, 1981
渡辺貫二編, 武者小路實篤九十年, 皆美社, 1994
——, 人間らしく生きるために, 皆美社, 1994

【論文】

市原豊太, “人生論者としての武者小路實篤” 文藝, 1956
宇野浩二, “文章改革者としての武者小路實篤” 文藝, 1956
龜井勝一郎, “宗教的人間武者小路實篤” 文藝, 1956
柴田篤, 일본인과 기독교, 大韓日語日文學會《日語日文學》제11집,
199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武田寅雄, “「白樺」群像(-)”, 神戸女學院大學 제18권 제1호. 1971
武田泰淳, “小説家としての武者小路實篤”, 文藝, 1956
谷澤永一, “初期武者小路實篤思考態度”, 關西大學 文學論集
제7권 제4호. 1958
長與善郎, “人間武者小路實篤” 河出書房, 文藝, 1956
武者小路實篤, “我が人生”, 文藝, 1956

<ABSTRACT>

**A Study on Early Works of Musanokojisaneasseu and New Village
- centering on humanity and its practice -**

Jo, Jeong-Geum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Nan-Hee

As an influential writer, Musanokojisaneasseu who dominated Dajeonggi from learning academy took an active part through Baekhwapa. In the conservative atmosphere of Daejonggi in which class distinction of age and social position in Myeongchi period existed, he was supported by many young people at that time by inspiring new value. Main belief of Saneasseu is unlimited trust toward human. When the premodern element overflowed and ordinary value of individual was not recognized yet, he tried to renovate with the power of literature. His literature, in the aspect of nature of literature, is lack of refinement. And the device and rhetoric which are exquisiteness of only literary works are not added to his works, which leads to dry atmosphere of his literature. However, it always pursues truth. Even though he, once respected Tolstoy, did not accept immorality and salvation of Christianity, he absorbed deeply love toward human. As a positive viewpoint toward human through his whole life, he created works based on the natural bright personality. Tolstoy and Meterulrink had a big effect on his works. Regarding the year 1918 as the period when his religiou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2.

and humanity personality began to appear, this study examined his human love through his works 『Ujeong』 and 『Hangbokja』 and also examined in connection with new village which was a place for practice.

In the 『Ujeong』, humanity was reviewed through friendship between Daegung and Yado. These two people were close friends. However, by intervening woman Samja between them, the conflict happened. Their friendship came to a crisis in front of love. But Sinaeasseu showed humanity based on the concern through Daegung leaving for foreign country because of friendship. Through Yado, he showed firm figure of human selecting a way of comeback, not bearing dislike or hatred toward a friend in the pain of disappointed love. Humanity through love between man and woman escaped existed predominance man over woman and showed progressive viewpoint of woman which considers importantly the fate of woman.

In the stress of emphasis on self-sacrifice love of Tolstoy, he came to know by chance Meterulrink. Under his influence, he was deeply interested in "self". Meterulrink emphasized strong inner self controlling fate rather than being dominated by fate. Sinaeasseu was strongly fascinated by Meterulrink's idea. Main character Daegun, Yado and Samja did not overlook on themselves in any situation and not give up their growth and maturity. So, these were related to Meterulrink's idea.

In 『Hangbokja』, more deep love was described than 『Ujeong』. Sinaeasseu pursued true life and religious life. By realizing Agape, he tried to make more beautiful world. As an attempt to inform this idea to members of new village, he used it as a message. A student "I" following a teacher developed a story as a narrator and humanity of a teacher being seen in the eyes of "I" was described in the style of retrospection. Among people of various type through the meeting of a teacher, actual humanity of a teacher was examined. Reminding of the Son Jesus, the figure of Jesus looking at the viewpoint of positivism reflected. In spite of practicing good behavior, a teacher fell into a plot and got hatred. However, he showed deep humanity by accepting them. Through unlimited love accepting other's guilty and fault along with his unselfish love, Sinaeasseu showed possibility of another humanity. In the same

period, assuming a work 『Yaso』, he was fascinated with religion and established new village based on his enthusiastic love and interest in God and human. Not human love of academic discussion, by practicing actual love over the small stage of literature, new village was his experimental idea for making ideal community in which labor and mental life were harmonized with.

